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화해·용서의 천도재

최근 사회적으로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천도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검찰의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의 지휘선상에 있던 정태 전 서울지검 3차장 검사가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서 묵직한 불자인 어머니와 함께 승진 피의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고 한다. 또 지난 21일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실제 모델인 김두한 씨의 30주기를 맞아 천도재가 봉행됐으며, 실종 11년 만에 대구 와룡산 세방굴에서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소년들과 그 가족을 위무하기 위한 영가 천도재는 대구 동화사에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천도재(天度齋)는 영가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이다. 그 어느 종교에도 이같은 천도재는 없다. 보통의 가정에서 조상들의 기일에 지내는 유교식 제사와도 엄연히 다르다. 혹여 이승의 삶을 잊지 못해, 따돌리라도 할까봐 일부러 마음을 내어 영가를 부처님 도방에 초청하고, 죽은 자와 산자가 마음을 나누며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 바로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천도재에 대해 기복적이라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죽은 자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표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과 증오만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를 화해와 용서로 이끌어 내는 힘이 된다.

사회적 의례로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소통으로서, 궁극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방편으로 그 반경을 확대해 가고 있는 천도재, 그동안 절에서 지내는 천도재를 무심히 바라보았다면, 앞으로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내 마음도 보태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전체의 해탈을 위한 일일 것이다.

이은자(취재2부 차장)

## 참여 저조... 직장신행 크게 위축

### '법회 참석 25명 미만' 49%, '지도법사 부재' 28%

조계종 포교원, 직장 단체 지도자 설문조사  
운영·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여건조성 시급

직장불교단체들이 회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활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자체 회원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단체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포교원이 7월 6~7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전국 직장직능단체 임원 및 지도자 수련회에 참가한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평균 법회 참석인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63명 중 87명(49.2%)이 25명 미만, 50명(28.2%)이 25~50명이라고 응답한 반면, 1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13명(7.3%)에 불과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108명(61%)이 회원들의 참여부족을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2~3년 새 직장단체가 수적으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세태와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된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경전공부(25명), 봉사활동(19명), 수련(5명)이라는 응답은 27.6%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72.4%가 법회 활동을 꼽아, 직장단체 불자들의 신앙이 법회활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불자들의 다양한 신행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자체 회원교육 프로그램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2%에 달하는 103명이 '없다'고 답했으며,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할 법사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도 49명(27.7%)이나 됐다. 특히 지도법사가 없다고 답한 직장인불자들의 절반 가량이 44.2%가, 지도법사가 없는 이유를 '팔아줄 지도법사가 없다'고 말하며, '법회 직장단체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청년포교단체협의회 장천연 사무국장은 "종단차원에서 교육교재 배포, 합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도법사 추천 등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불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담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략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등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당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시상내역  
▷대상(유망상)  
▷우수상(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등모자 전달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스님·신부, '새만금간척' 항의 삼보일배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18일 제8차 삼사협약(삼보일배) 전국제약의 총회가 열린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3보1배 기도 정진을 하며 새만금 간척을 중단할 것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또 이날 삼사협약총회에서는 총회에 앞서 15~16일 열린 '세계 NGO 습지대회'에서 채택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NGO 결의문'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새 한국 대통령에게 보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 호소문을 채택했다.

## 도제양성연구회 본격 가동

### 진각종, 교육제도·프로그램 개발 진행

진각종이 도제양성연구위원회 구성해 종단 교육체계 확립에 나선다.

진각종(총리현장 효암)은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스승(진각종 승려)의 통칭양성을 위해 도제양성연구위원회(이하, 연구회)의 인선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진각종은 지난 9월 열린 제 20회 원의회(총형정 기관 간부 회의)에서 교육원 해정 정사를 위

원장으로 하는 연구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연구위는 불리원, 교육원, 진각대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도제양성교육을 연구위로 통합하는 한편, 스승 재교육 및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위는 이달 말 1차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 동국대학교 제15대 총장 후보

### 홍기삼·조희영·정병조 교수 추천

동국대 제15대 총장후보로 홍기삼(국문학과) 조희영(경영학과) 정병조(문리문화학과) 교수가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대 교수회와 교직원 노조는 20일 중앙당과 노조사무실에서 제15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교수회의 1차 투표결과 모두 재적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71표로 최자 득표한 홍치유 교수를 제외한 뒤 실시한 2차 투표에서는 홍기삼 250표, 조희영 125표, 정병조 교수 114표순이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1, 2위를 차지한 홍기삼, 조희영 교수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또 교수회와 별도로 진행된 교직원 노조의 투표에서는 조희영 교수가 142표, 정병조 교수

가 87표, 홍기삼 교수가 55표, 홍치유 교수가 16표를 얻어 조희영, 정병조 교수가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학원 이사회가 후보추천을 수용할 경우, 교수회와 교직원 노조에서 선출된 홍기삼, 조희영, 정병조 등 3명의 교수 중 1명이 차기총장으로 낙점된다.

한편 이번 교수회 투표율이 88.91%(총 유권자 550명중 489명 투표)로 높았고, 교직원 노조 투표율도 79.7%(총유권자 379명중 302명 투표)에 달해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김원우 기자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두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3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원: 0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일양: 055353-1196



◇'묘법연화경 서사보탑도'

### 묘법연화경 서사보탑도 전승공예전 '대상'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이사장 정준모)가 주최한 '제27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불화작가 김중우(88)씨가 '묘법연화경 서사보탑도'로 대상을 받았다. 탑 형상으로 모두 2만5천여자가 금으로 사경돼 있다. 심사위원단은 "고려불화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사경 분위기를 낸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 고려장 이성준 △은상 누전현정당초문 이충승(이공형) 한지수(윤순희) △동상 백자 달항아리(서광수), 노리개(김희수), 활판(김영숙), 김주익 기자

### 김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문 발행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도(有)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해어질 수 없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물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의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이사전(自傳)의 원제는 「김산노인자서연보실록 金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김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수(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인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난후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생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지은이 김산 (1546~1623) 스님은 은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자유공, 역불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죄로 6년 동안을 갇혀 법을 심화시켜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종에서 머물면서 선법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嶺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師)를 건립하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誠)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한성요지』와 『방편개시』, 『아시아문학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트미안(라마나 마하트미안)의 『마무나람라 총서』(참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